

페미니즘 담론의 본격적 도정에 오른 모성성

-『한국문학과 모성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편)-

김현실*

페미니즘이 우리 문학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지도 십여 년이 지났다. 초기의 사회학적·내용중심적 여성성 논의에서 나아가, 여성작가들의 문학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거나 문학적 특성들을 다양한 페미니즘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모여 이제는 페미니즘 문학 연구도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이 시점에, 마치 서양의 다른 문학이론처럼 페미니즘 역시 한차례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현상인 듯 치부해 버리려는 문단의 풍조 때문에 페미니즘 문학연구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하나의 문학이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그것도 지금까지 남성중심의 시각으로만 재단되던 인간의 삶에 대한 ‘다시 보기’이다. 따라서 다른 문학이론처럼 유행의 물결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타자’나 ‘주변인’으로 취급되는 한, 그리고 그러한 문학적 서사가 지속되는 한, 그것을 자각하는 페미니즘적 목소리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초기에는 그것들을 서양의 이론에 기대어 외치는 바람에 민족적 탈식민성과 남성으로부터의 탈식민성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페미니즘적 현실과 적절히 조우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

* 용인 송담대학.

나 이제 우리의 작품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담은 목소리를 그대로 읽어내고 거기에서 우리문학의 페미니즘적 문제들을 짚어내는 작업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동안의 서구이론 중심이나 사회역사적 담론들로부터 한발 나아간 본격적인 우리의 페미니즘 문학분석서들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번에 나온 『한국문학과 모성성』도 그러한 연구서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이 책은 보편적인 ‘여성’이나 ‘여성성’의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조명한 기왕의 페미니즘 문학연구서들과 달리 ‘모성성’이라는 하위범주의 담론을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일반적으로 ‘여성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늘 당연하게 되는 것이 ‘모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여전히 페미니즘이라는 상위 논제가 안정적 위상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우리 문학의 ‘모성성’을 집중 분석하여 엮은 이 책이 나오으로써 페미니즘 문학연구는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책의 목적은 모성에 대한 과도한 긍정과 부정 속의 오해와 왜곡을 벗겨내고 모성성의 문제를 페미니즘 문학연구의 하위 담론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려는 데에 있다. 그것은 페미니즘 연구에서의 통상적인 ‘여성성’ 논의가 늘 귀찮하게 마련인 희생적 모성과 주체적 여성 사이의 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다름아니다.

10명의 논문이 각각 다른 시대의 다른 작품들을 다루면서 다양한 모성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서문에서 소개하는 두 방향의 페미니즘 접근법은 이 책의 공통된 전제라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사회 역사적 접근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서구이론 소개가 페미니즘의 기본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본문의 접근 방법을 암시해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문학의 실제에 접근한 다양한 논문들을 크게 구속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여타 페미니즘 관련 서적들과 다

른 이 책의 미덕이라 할 것이다.

본문은 다음 열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의 작품과 삶을 분석한 「조선시대 모성성 연구」(김명희), 계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강박적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고찰한 「계모 이야기」(강유리), 『혈의 누』와 『약한 자의 슬픔』을 대상으로 신여성의 성장과 파탄에 숨겨진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밝힌 「근대문학 형성에 나타난 모성의 성격」(박숙자), 이태준의 『성모』를 분석하여 모성 이데올로기의 30년대식 포장을 밝혀내고 그것이 신화로서 재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해 보고자 한 「『聖母』, 끝없이 이어지는 신화의 재생산」(이정옥), 『탁류』의 초봉의 비극이 어머니와의 심리적 미분리에 따른 의존-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 「어머니의 딸, 딸의 어머니 그 대물림」(박선경), 장용학의 『비인탄생』을 중심으로 남성작가에 의해 왜곡된 모성의 양상을 드러낸 「현실적 모성과 이상적 모성간의 거리」(이부순), 박완서의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을 어머니-딸의 여성적 연대의식 및 분리-갈등-결합의 서사구조로 분석한 「엄마의 말뚝 1 2 3」 연작소설과 모녀관계의 은유/환유체계」(안숙원), 오정희 초기소설의 모성성 거부 의식을 파헤친 「오정희 초기소설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자매애적 연대라는 긍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서사보다 딸의 서사 쪽에 서 있는 신경숙 소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오이디푸스적 시선 속에 동요하는 글쓰기」(공임순), 90년대 소설의 공통요소인 「불모성」을 주제적 차원에 따라 세분한 「9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불모성과 단절의식」(오세은).

다소 장황하게 이들을 나열한 것은 시대적으로나 작품의 종류, 접근법에서나 모두 다양하면서도 문제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간략히 요약한 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시도는 모두 참신한 시각들을 엿보게 한다. 여성고유의 자질로 미화된 모성성의 신화를 벗겨내려는 노력(김명희·강유리·이정옥), 남성작가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모성의 양상을 드러내려는 시도(박숙자·이부순),

여성적 연대의식을 어머니-딸의 서사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거나(안숙원), 대를 이어 전승되는 모성성의 강박적 세습(박선경), 여성가족 로망스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시각으로 살펴본 연구((공임순), 여성작가의 불모성이나 모성거부를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의 기제로 보는 해석들(오세은·심진경)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 논문이 지니고 있는 의의에 주목하는 만큼 개개논의들이 보여주는 틈이나 반론의 여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보다 나은 후속 연구로 이어지리라는 믿음에서 이 글은 몇 마디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일 첫 논문으로부터 걸린 의문은 모성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여성작가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에만 치중하여 그러한 모성성이 작품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초기 페미니즘 문학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학이 사회학적 연구를 위한 방증자료로 쓰여진 듯한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가령 허난설헌의 ‘哭子’를 분석한 경우, 그 작품이 모성이데올로기에 희생된 난설헌의 심정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좌절된 모성’이라는 비극적 정조가 그의 문학적 깊이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로 인해 당대의 남성작가들의 예술양식과는 어떻게 다른 미적 형상화를 이루게 되었는지에까지 나아갔더라면 더 문학연구다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전문학연구와 현대문학연구가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방법적 차이를 들어 그것의 무리함을 논박할 수도 있겠으나 예술양식이나 미적 형상화에의 해명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재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작품 그 자체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모성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고전문학연구에서도 염연한 당위가 아닐까?

물론 뒷부분의 현대문학을 다룬 논문에 이를수록 작품 자체에 입각한 분석은 당연한 전제가 되고 있지만, 더불어 그 모성성이 작품의 형상화에 미친 영향에까지 나아가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감이 있다. 그 가

운데서 의식적으로 형식과 이데올로기를 통합하여 보고자 한 ‘엄마의 말뚝’ 분석은 그러한 노력을 가장 잘 보여준 글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 그것이 지나치게 의식된 결과 논의의 핵심을 흐리게 한 아쉬움이 있다. 가령, 글의 핵심이 작품의 은유/환유와 어머니-딸의 분리/결합이라는 서사 구조를 연계시키고자 한 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의 기호학’이니, 박완서 문학의 ‘실존적 생명의식’이니 하는 것들을 모두 거론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부분적으로 초점이 흐려져버린 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작품 그 자체에서 다루어진 모성성의 특징들을 충실히 추적하여 심리적 분석이나 사회적 의미, 작가적 특징까지 밝히는 선까지는 나아갔으나 여전히 그러한 모성성이 작품의 구조나 문체 등과 어떤 연관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이 책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작품의 대표성 여부이다. 가령 이태준의 장편소설 『성모』를 통해 30년대 모성론의 실체를 규명하려 한 논문의 경우, 그 작품 하나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의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시대와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마다 성모신화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추론을 하기에 그 작품이 적절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육화되지 않은 관념적 계몽성으로 일관된’ 이 작품의 문학적 결함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러한 텍스트 분석이 문학사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따라서 논자가 결론에서 지적했듯이 당대의 여성작가나 이광수·김동인·염상섭·채만식 등의 모성론뿐 아니라 그와 다른 양상의(이무영의 『어떤 안해』와 같은 작품) 작품에 드러난 페미니즘적 시각까지도 아우를 때 이 글은보다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적이 「혈의 누」와 「약한 자의 슬픔」을 다룬 논문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두 작품을 “신여성의 성장과 파탄”이란 연속적 서사로 묶어 해명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 아닌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개별 작품론만 보더라도, 「혈의 누」에서는 봉건의식과의 결별을 의

미하는 부모와의 결별 부분을 지나치게 어머니쪽으로만 축소시켰고, 「약한 자-」에서는 신여성의 행적에 대한 김동인 자신의 악의적이고 과장된 시선을 지나치게 그대로 받아들여 마치 당대적 시각의 전형인양 해석한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의 문제는 그다지 연속적 전형으로 볼 수도 없는 두 작품의 주인공을 신여성이라는 공통항으로 묶어 그 시대의 시각으로 해석하려 한 데에 있다. 신소설로서의 「혈의 누」는 분명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약한자의 슬픔」은 신여성의 파멸을 다룬 동시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보거나 김동인 자신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도 그 형상성 여부나 완성도에서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 개의 작품분석으로 전체를 추구하려는 일반적인 위험성은 늘 경계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그 한 개가 대표성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의 기본적 전제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작품만을 취했어도 「탁류」나 「엄마의 말뚝」처럼 그 자체로 문제적인 작품이거나 장용학의 「비인탄생」 연구처럼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끊임없이 비교되면서 한 작가의 모성 이미지를 밝히려 할 때, 보다 바람직한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논의 자체가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진 몇몇 논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성성이라는 단일한 잣대만으로 작품을 포착하다 보니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이나 다의적 해석의 폭이 좁아지고 단순화될 우려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오정희의 「번제」 해석이 그러하고, 또한 어머니 서사를 배제했다고 보는 신경숙의 작품 가운데 「별판 위의 빈집」 해석이 그러하다. 「번제」는 이미 수많은 다른 평론가의 다른 해석이 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신경숙의 작품만을 다시 본다면 그것이 신화적 설화적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논자와 정반대의 해석까지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현실적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며, 끊임없는 일상적 노동의 피곤함 속에서 집요하게 보살핌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사

량과 미움이라는 양가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볼 때, 그 작품 속의 ‘아이 떠밀기’는 공포스런 어머니에 대한 딸의 입장이 역투사된 것이라기 보다 양가감정의 어머니 입장이 직접 투사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논문들이 다소 작품을 단순화시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모성거부’라는 잣대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매우 설득력있는 작가론에 도달한 것과 반대로 이 책의 마지막 논문은 바로 그 일관된 시선이 분명치 않음으로써 아쉬움을 던져주는 글이다. ‘불임’의 모티브를 통한 현대작품 속의 불모성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가의 서로 다른 특성을 범주화하다 보니 ‘관습적 모성의 거부’, ‘우주론적 사유’, ‘단절적 경험과 주체적 인식’이라는 불모성의 세가지 의미가 최종적으로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채 산만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작품들에서 다루는 ‘불모성’의 화두는 여성의 몸이나 여성 그 자체가 ‘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매우 타당성 있는 결론조차도 그것이 앞의 분석의 종합적 결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며, 특히 여성의 불구적 체험이 현대인의 정신적 불구화를 대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결론적 전망에 이르면 이 논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룬 작품 분석은 물론 이 책 전체가 다룬 ‘모성성’이라는 화두로부터도 너무 멀리 떠나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 분석이나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이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페미니즘적 문제의식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 결론은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구화된 현대인 개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필 ‘불임’이라는 여성 육체의 불구성을 소재로 택했는가 하는 점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 본다면 적어도 본론과 결론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산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책의 모든 논문들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페미니즘이나 모성이론에 대한 각주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각자 다루고 있는

한국작품들의 기존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각주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작품들이 모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성성 연구가 우리 문학작품을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신들이 다른 작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나 연구들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밖에도 몇몇 논문에서 보이는 서구이론의 변화함, 심리적 접근에 비해 다소 빈약한 역사사회적 접근등이 좀 눈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미덕에 비한다면 티끌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광범위한 ‘여성성’ 논의에만 그쳤던 페미니즘 담론들과 달리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모성성’을 화두로 하여 페미니즘 연구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의의이며, 십인십색의 개성들을 ‘모성성’이라는 하나의 틀로 모아 단순한 논문 모음집의 폐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또한 큰 미덕이다. 그리고 여전히 서구이론에 강박적인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작품현실에 입각해서 고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성성’의 면모들을 찾아내고자 한 시도가 돋보이는 점, ‘문학’이라는 텍스트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사회학적 접근과는 엄연히 다른, 분명한 ‘문학’연구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야말로 여성연대의 힘을 보여준 노작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큰 장점에는 눈감고 티끌이나 틈만을 찾아내려 애쓴 필자 또한 그러한 연대가 더욱 공고해져서 보다 진전된 여성문학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

이제 페미니즘 문학연구도 다원적으로 보다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여성의 또 다른 이름인 ‘어머니’에 내포되어 있는 무수한 오해와 왜곡을 벗겨내고, ‘딸의 서사’에서 배제되기 쉬운 ‘어머니의 서사’를 복원하여 진정한 페미니즘적 서사에 접근하고자 한 이 책의 논의들이 그러한 진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